



3면

333개 특례 실행력 강화 본격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음 1월 17일) 제3452호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선거구 1석 축소 위기 여야 도당 '반대 속 신경전'

민주당, 의원 성명 통해 "국힘, 빨리 결단하라"
국힘, 민주당 김윤덕 의원 겨냥 "연명 받아와야"

선거구 확정안 29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확정안 대로 통과시 도내 총선 대혼란 불가피

전북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

뉴스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46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확정안은 여야의 입장차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확정안을 위한 막판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는 팽팽한 의견차로 자칫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안대로 선거구가 변질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여야 전복도당은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의석 축소에 반대하면서도 민주당 특정 의원을 겨냥, 부산지역 민주당 의원의 연명을 받아오면 설득하겠다고 밝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지역 의원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12월, '국회 의원선거구조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조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등 선거구 조정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졸속 조정안"이라며 "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어 "여야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안이며, 지역간 균형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강남 등 소위 국민의힘 '넛밭' 지역구 사수를 위해 선거구 확정 협상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거구 확정 지연으로 국민들과 후보자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파적이다"고 꼬집으며 국민의힘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날 김윤덕 의원이 국민의힘 전북도당과 정운천 의원을 겨냥해 결단을 요구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판'과 함께 '협치'를 동시에 요구했다.

보도자료에서 도당은 "국민의힘은 전북지역 선거구 1석 줄이는데 반대한다"고 전제한 후 "깜버리 파행 책임을 떠넘기듯 또 선거구 감소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으시겠느냐"며 "협치의 큰 틀에서 김윤덕 의원님께 요청한다"고 시작했다.

도당은 이어 "먼저 고민하셨으니, 김 의원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산지역 선거구 1석 줄이는 안에 대해 부산지역 민주당 출마자들의 연명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면서 "이후에는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나서 중앙당을 책임지고 설득하도록 하겠다. 멋진 협치의 큰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확정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1곳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1곳씩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북에서는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가 각각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으로 통합 조정된다.

만약,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안대로 통과가 되면, 전북은 지금의 10석이었던 선거구가 9석으로 줄어들게 되고, 일부 지역은 선거구가 조정되는 등 총선 예비후보들의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 2024 K리그 출정식에 참석하여 선수단과 서포터즈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승리의 함성소리, 우리나라에 널리'

전북현대, 2024 K리그 출정식... 김관영 도지사도 참석
김 지사, K리그 시즌권 구매·선수단·서포터즈 격려
내달 1일 개막경기 등 월드컵경기장 찾아 응원계획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명문 구단인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이하 전북현대)이 지난 24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와 1,000여명의 서포터즈가 참석한 가운데 2024 K리그 출정식을 개최했다.

전북현대는 지난 1994년부터 전북에 연고를 두고 K리그 통산 9번째 우승과 프로리그 출범이후 역대 최초로 5연패를 달성하는 명문구단으로 2024 시즌에는 K리그 우승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현대는 지난 10월에 부임한 이도현 단장과 단 페르레스수 감독

은 발빠른 영입전을 펼쳐 국가대표급 선수와 최전방 외국인 공격수를 보강하고, 지난 1월초부터 2월초까지 두바이 전지훈련을 마치고 시즌 준비를 마무리했다.

전북현대 출정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대표해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 시즌권을 구매하고 선수단과 서포터즈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올 한해도 "선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몸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전주성에 승리의 함성소리(오오렐레 ~ 오오렐레 ~)가 전북특별자치도를 넘어 대한민국에 널리 울리도록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현대를 사랑하고 격려하

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12번째 선수인 서포터즈분들에게 "올 시즌에도 변함없이 전주성을 지키기 위해 열정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3월 1일 열린 전북현대 개막경기를 관람하는 등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서포터즈와 함께 K리그 우승을 위해 한바탕으로 전북현대를 응원할 계획이다.

이날 전북현대 이도현 단장과 선수단은 "2024년 도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우승컵을 들어올리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도민들이 전북현대 경기를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현대는 오는 3월 1일 대전 하나시티즌과 K리그 홈경기를 시작으로 2024년 K리그 대장정에 오르게 된다. /김재훈 기자

보건의료 재난 '심각' ... 자치도, 재난대책본부 가동

비상진료 대응 확대 필요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재난 위기단계가 '경계'→'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지난 23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열었

다고 25일 밝혔다.

이 회의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있고, 의사 협회에서도 총궐기 대회를 예고하는 등 비상진료 대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군립병원, 지방의료원, 보건

소 등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공휴일 진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119소방, 유관기관과의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진료 공백을 최소화 해 줄 것을 14개 시장·군수에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앞으로 지역의료 협업체 등 기 구축돼 있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의사단체를 포함한 지역 내 의료계와 소통해 의료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군민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고창군의회 공식 SNS OPEN

검색창에 **고창군의회**를 입력하고,
고창군의회 소식을 더욱 쉽고 빠르게 받아보세요.

Search... **고창군의회**